



방송인 배성재(왼쪽)와 도경완이 올해 2월 각각 몸담아온 KBS와 SBS를 떠나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더욱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제공 | 스포츠동아·DB·MBC

## 도경완 '건강한 예능캐'...배성재 '중계 아이콘'

'슈돌' 도경완 예능감... '어서와' MC도 배성재 유료2020 '골 때리는...' 게스트

'용호상박'(龍虎相搏), '프리'(프리랜서) 아나운서 세계에 새로운 양상 구도가 형성됐다. 각각 KBS와 SBS의 '간판' 아나운서 출신인 방송인 도경완과 배성재가 주인공이다. 2월 나란히 퇴사한 이들은 모든 방송 채널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 각 방송사 아나운서들의 잇단 '프리 선언' 속에서도 저마다 개성을 극대화하며 시청자 호평을 얻고 있다. 덕분에 각각 12년, 15년간 몸담은 '고향'의 색깔을 단박에 지우고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의 '리브롤'을 휘둘고 있다.

●도경완...확실한 '예능캐'  
KBS에 몸담고 있던 시절 '슈퍼맨이 돌아'

왔다(슈돌) 등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한 경력을 살려 예능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 퇴사 직후 MBC '라디오스타',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를 통해 KBS 아나운서 근무 당시 겪은 다채로운 뒷이야기와 함께 아내인 트로트가수 장윤정과 관련한 에피소드까지 쏟아내 화제가 됐다. '슈돌'에 함께 출연한 아들 연우 군·딸 하영 양과 함께 유튜브 계정 '도장TV'도 운영하면서 개설 한 달여 만에 최대 189만 조회수까지 올리고 있다. 이젠는 진행 프로그램도 늘려가고 있다. 8일부터 방송을 시작하는 MBC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빌푸네 방송'의 새로운 진행자로 나선다. 5월23일부터는 디스커버리채널코리아 '지구엔 무슨 129?'도 진행하고 있다. "오래도록 방송

할 수 있는 '건강한' 예능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담아내고 있다. 특히 방송 환경이 낯선 비연예인 출연자들과도 잘 어울리는 편안한 매력이 각 프로그램 제작진의 마음을 뺏은 비결로 통한다. 도경완은 최근 스포츠동아 인터뷰에서 "내가 돋보이려고 노력하기보다 출연자들의 이야기를 한 마디라도 더 듣고 믿어주는 것이 스스로 편하다"면서 "각자가 모두 돋보여야 프로그램이 잘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성재...중계 아이콘' 우뚝 SBS에서 월드컵·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 캐스터로 활약한 이력이 최대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등 호흡을 맞춘 파트너들도 화려하다. 지난달 12일부터 tvN의 '2020 유

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20) 중계석을 지키고 있다. 채널융합사인 CJ ENM이 대외에 앞서 발 빠르게 섭외했다. 자연스럽게 스포츠 관련 예능프로그램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SBS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여성 연예인들의 축구 경기를 다루는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캐스터로 활약하고 있다. 2016년부터 이끌어온 라디오 프로그램 파워FM의 '배성재의 텐'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인방극장을 넘어 유튜브 등으로도 무대를 뽐나가고 있다. 지난달부터 '제1의 본부장' '집안싸움' 등 각종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해 한층 더 '날 것'의 매력을 드러내 인기를 모았다. 또 3월 워너 강승윤의 솔로 1집 '페이지' 발매 기념 쇼케이스 등 각종 행사도 진행하며 새로운 무대에도 나서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티켓 예매율 90% 육박 '블랙 위도우' 태풍 임박

주말 누적관객 100만명 무난할 듯 여성 슈퍼히어로 숨겨진 얘기 관심

'블랙 위도우'가 폭발적인 기세로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감염병 사태 이후 최고 예매율을 기록하며 극장가에 새로운 '마블 히어로' 열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할리우드 마블스튜디오의 슈퍼 히어로물 '블랙 위도우'가 7일 오후 5시(한국시간) 전 세계 동시 개봉한다. 이에 앞서 6일 오후 4시 현재 실시간 예매율이 87.2%(이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로, 24만1000여명의 예매 관객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첫 주말 전국 누적 관객 100만명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블랙 위도우'의 예매 수치는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이후 최고치이기도 하다. 감염병 확산 여파 속에서도 관객 관심이 그만큼 쏠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6일 현재 박스오피스 1·2위로 흥행세를 유



영화 '블랙 위도우'가 7일 개봉에 앞서 전날 24만1000여 관객을 확보하며 흥행 청신호를 켰다.

사진제공 |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지하고 있는 '발신제한' '크루엘라' 등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이다. '블랙 위도우'는 이 같은 기세로 극장가 관객수를 크게 늘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블랙 위도우'는 마블스튜디오가 선보여 온 '어벤져스' 시리즈 등에 등장한 여성 슈퍼 히어로 블랙 위도우의 이야기. 숨겨져 있던 그의 과거에 얽힌 스토리 등으로 관객 호기심을 자극해왔다. 특히 마블스튜디오

의 슈퍼 히어로들에 애정이 깊은 한국 관객에게 다가서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도 펼쳐왔다. 주연 스칼렛 존슨 등은 관객 호기심에 화답하듯 최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게스트로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관련 웹툰도 6일부터 네이버웹툰을 통해 공개됐다. 작가 마크 웨이드가 2016년 미국에서 연재한 만화를 새롭게

꾸며 선보이면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영화로도 이끌고 있다. 또 수입배급사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는 최근 '#보고싶다. 블랙위도우 챌린지'를 펼치기도 했다. 6월1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챌린지는 '블랙 위도우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콘셉트로 1000여명의 관객 참여를 이끌어내며 개봉 전 열기를 달궜다. 유은주 기자 tadada@donga.com

## 영화 '방법' 엄지원-정지소, 드라마보다 캐릭터 업그레이드

수동적 인물서 적극적인 역할로 변신

연기자 엄지원과 정지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모습으로 스크린에 나선다. 지난해 화제 속에 방영된 tvN 드라마 '방법'의 두 주인공인 이들이 관련 무대를 확장한 영화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이끈다. 엄지원과 정지소는 영화 '방법:재차의'(감독 김용완·제작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의 주연으로 28일 관객을 새롭게 만난다. 이들은 영화를 통해 드라마 '방법'의 캐릭터



영화 '방법:재차의'의 주역 오윤아·정지소·엄지원·권해효(왼쪽부터)가 6일 온라인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CJ ENM

터 등 기본적인 설정을 바탕으로 그 3년 뒤에 벌어지는 사건을 그려간다. 되살아난 시체인 재차의(在此·여기 있다는 뜻)라는 존재가 자행하는 연쇄살인의 이야기이다. 엄지원은 이를 막기 위해 분투하는 전직 기자, 정지소는 저주의 능력을 지닌 방법사역을 각각 연기한다. 드라마는 지난해 방영 당시 한국형 오컬트 스릴러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를 확장한 영화는 흥행작 '부산행'의 연출자이면서 '방법'의 드라마를 쓴 연상호 감독이 시

나리오를 다시 집필했다. 엄지원·정지소 등 기존 출연진과 함께 다시 호흡을 맞췄다. 여기에 권해효·오윤아 등이 새롭게 합류했다. 개봉에 앞서 7일 열린 온라인 제작보고회에서 엄지원은 "드라마에서 초현실적인 일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역할이었다면 이번에는 더 적극적인 인물이 된다"고 소개했다. 정지소도 "드라마 속 캐릭터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연상호 감독은 "드라마의 미스터리 추적극 형식을 따르면서 속도를 높였다"며 시각·청각적 재미를 자부했다. 유은주 기자 tadada@donga.com

## '모범택시' 시즌2 나온다

시즌1 당시 시청률·화제성 두 토끼 잡아 이제훈·김의성 등 주연들 출연 의지 강해



'모범택시'

SBS '모범택시'가 시즌제 드라마로 거듭날 전망이다. 6일 방송가에 따르면 '모범택시'의 제작사 스튜디오S는 최근 시즌2를 제작하기로 확정했다. 아직 기획 초기 단계로 정확한 제작 시기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내년 방영을 목표로 제작진을 꾸리고 있다. 시즌1의 일부 연기자들에게도 출연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29일 종영한 '모범택시'는 사적 복수 대행업체 '무지개 운수'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이다. 특수부대 장교 출신 직원 이제훈, 사장 김의성, 해커 표예진 등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가해자들에게 대신 복수하는 내용이다. 시원한 액션과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면서 18%(닐슨코리아)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특히 불법촬영 동영상 유포·학교폭력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녹여내며 호평을 얻었다. 종영 이후에도 시즌2 제작 요청이 쇄도했다. 높은 수치의 시청률과 화제성을 얻은 덕분에 제작사도 일찌감치 시즌제 준비에 돌입하게 됐다. 에피소드 형식으로 다양한 사회 이슈를 다루는 포맷이 시즌제로 만들기에 맞춤형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관건은 이제훈·이승·김의성 등 시즌1에 출연한 주요 연기자들의 일정이다. 이들 모두 스크린과 인방극장을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일정을 맞추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들이 무사히 시즌2에 합류할 것이라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제훈과 김의성 등은 종영 인터뷰를 통해 "시즌2는 무조건 나와야 한다"면서 "제작진이 캐스팅해준다면 다음 시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시즌제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 바 있다. 유지혜 기자

## 연예뉴스 HOT 3

국민MC 유재석, 6년 몸담은 FNC엔터와 이별



유재석

방송인 유재석이 6년간 몸담아온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를 15일 떠난다. 6일 방송가에 따르면 유재석은 최근 이를 앞두고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카카오톡 터엔터테인먼트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안테나뮤직이 새로운 소속사로 거론되고 있다. 안테나뮤직은 가수 유희열이 이끄는 기획사이다. 이에 카카오톡엔터테인먼트는 "관련 논의를 했지만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유재석은 2015년 7월 FNC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2018년 한 차례 재계약에 활동해왔다.

신동엽·이유리, 채널A '랄라랜드' 고정 출연



신동엽

방송인 신동엽과 배우 김정은·이유리·고은아가 8월 방송 예정인 채널A 새 예능프로그램 '레전드 음악교실-랄라랜드'(랄라랜드)에 출연한다. '랄라랜드'는 연예인들이 유명 가수들로부터 직접 노래를 배우는 과정을 그리는 음악예능프로그램이다. 신동엽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김정은·이유리·고은아는 가장 미션을 수행하는 출연자로 나선다. 이들은 다양한 가수들에게서 노래를 전수받으며 각종 가창 미션을 수행한다. 6일 제작진은 "노래에 진심인 이들의 신선한 도전을 통해 재미를 안길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NS윤지, 코미디언 이상해 아들과 결혼



NS 윤지

가수 겸 연기자 NS윤지(김윤지·33)가 코미디언 이상해(최영근)·국악인 김영임 부부의 아들과 9월 결혼한다. 6일 연예계에 따르면 NS윤지는 5살 연상의 사업가 최모씨와 9월 빛채주 예식을 올린다. NS윤지는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평생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결혼 사실을 알렸지만 예비신랑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절친한 사이를 유지해온 부모들을 따라 만나며 사랑을 쌓았다. NS윤지는 2009년 노래 '머리 아파'로 가요계에 데뷔했으며, 최근 tvN 드라마 '마인' 등에 출연했다.